

Achille Castiglioni의 디자인에 관한 고찰

A study on design of Achille Castiglioni

정의철,이훈주

경남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Euy-Chul Jung, Heun-Joo Lee

Dept. of Industrial Design, Kyungnam Univ.

● Keywords: a narrative approach, principle design component.

1. 서론

뉴욕의 현대미술관에서 첫번째 개인전을 가진 이탈리아의 건축가이며 디자이너인 Achille Castiglioni (1918)는 국제적으로 명망이 높은 디자인계의 거장이다. 52년간의 경력을 통하여 조명등, 스톨, 책선반, 전기스위치, 카메라, 전화기, 진공청소기와 자동차 시트등을 포함 약 150여종의 제품을 디자인해왔다. Arco와 Brera와 같은 몇몇 작품은 여러박물관에 전시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에는 비록 Castiglioni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는 않지만 가정에서 이를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낯익은 것들이기도 하다. 응용미술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쳐왔고 수세대에 걸쳐 굳 디자인 개념을 익혀온 그의 작품은 디자인을 20세기 창조성의 최고 표현 수단으로 만든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30년대 말엽 Milan의 폴리테크닉 건축학교를 졸업한 직후, Castiglioni의 형인 Livio와 Pier Giacomo는 Milan에 사무실을 개설하였다. 당시의 많은 이탈리아 건축가들은 직업할 프로젝트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보다 작은규모의 디자인 프로젝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개별적으로 혹은 건축가 Luigi Caccia Dominioni와 공동으로 형제들은 인테리어, 전시설치대, 가구 및 제품들을 디자인하였다. Achille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후 공인된 건축가의 자격으로 1952년 큰형인 Livio와 함께 음향과 조명관계의 사무실을 개업하였다. 1968년 둘째형인 Giacomo가 죽기전까지 두형제는 일을 분담하기보다는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며 여러가지 디자인을 행하였다. 이 두형제의 창조적 디자인 작업은 독자적인 생산품들에 잘 나타나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본 논문은 Castiglioni의 디자인으로 부터 그의 작품에 대한 투명성과 기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지향해야 할 디자인 사고방법은 어떻게 전환되어야 할 것인가를 직시해보고자 하는데 있다.

2. 본론

이탈리아 인더스트리얼 디자인계의 챔피언으로서 그의 성공은 디자인이 어떤 훈련이 아니라 인간의 인문학적,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신념에 바탕을 둔

어떤 태도들이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그의 창조적 방법은 매우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보여 디자인 프로세스의 입문서가 될수 있으며, 기술과 경험을 갖춘 디자이너가 논리적이고 사리에 맞는 프로세스로부터 아름다운 제품으로의 점진적 도약을 성취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astiglioni는 실제작업의 기본적 원칙을 고백한다. "Start from scratch. Stick to common sense. Know your goals and means." 달리 표현하면, 디자이너는 이전의 유사한 사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하며, 새로운 물건을 창조하거나 현존제품을 개선해야할 이유를 이해해야 하며, 이용가능한 수단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디자이너는 Principal Design Component (PDC:주요한 디자인 구성요소)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 바탕위에서 디자인을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수학적으로 돌리고 불합리하게 들리지만 이러한 PDC는 재료와 생산공정에 대한 존중과 최종제품의 외형적 균형에 대하여 엄격하고도 신중한 디자인 프로세스상의 관심을 촉구하게 된다. 노년의 그는 교육자로서 그의 작업을 통하여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보급하였다. 그의 독특한 교수스타일은 제조 프로세스와 재료의 기술에 관한 진보적 연구와 아울러 디자인에 대한 인류학적 접근을 매끈하게 접목하였다.

그의 디자인 사례들을 통하여 그의 디자인 접근방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1) Sella stool

1957년 작은형인 Pier Giacomo와 함께 디자인한 선회축 스톨로서 기존제품의 부품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자전거용 가죽시트, 금속파이프, 원형의 금속으로 주조된 받침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 디자인에 대한 착상은 매우 흥미있다. "내가 공중전화를 사용할 때 이리저리 움직이고 싶어한다. 또한 완전한 자세는 아니지만 앉고싶기도 하였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 그의 PDC는 새로운 행동, 즉 제품의 혼합된 형태와 기능에 대한 탐구적 이해의 결과인 것이다. 그들은 새롭고 납득할수 있는 행동- 앉는 것과 안달하며 왔다갔다 하는 것 사이의 어떤 잡종품이라고 할수 있는 Sella에 대한 우화는 매우 교훈적이다.

2) Allunaggio seat

1965년작으로서 영어로“moonlanding”으로 번역된 실외용의 의자 디자인이다. 넓은 풀밭에서 사용할수 있는 디자인으로 의자의 그림자를 최소화하여 잔디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착안된 디자인이다.

3)Primate seat:

서구 여행자들을 위한 것으로 일본의 전통적인 저녁식사에 초대된 서양인들에게 편안한 자세로 앉을 수 있도록 하거나, 책을 읽기 편안한 자세를 제안하고자한 디자인이다.

4)Spirale 재떨이

기존 재떨이에 대한 리디자인으로 금속용기에 스프링을 장착한 재떨이로서, 담배를 스프링에 끼워 놓을수 있으며 또한 용기의 청소를 용이하게 하도록 스프링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도록했으며 Allesi에서 생산된 디자인이다.

5)Tubino desk or wall lamp

1930년대에 처음으로 개발된 형광등은 전후세대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가져왔다. 백열등보다 전력소모가 적고 열이 덜 발생하며 밝은 빛을 발사하여 비용효율이 우수함이 입증되었다. Achille와 Giacomo는 미국에서 이용가능토록 만들어진 매우 조그마한 형광등을 그들의 Tubino램프로 변형하였다. 가늘고 축소된 유리튜브의 크기는 램프의 직선과 극소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았다. 있는 그대로의 숨김없는 형태로 알루미늄과 같은 공업재료를 사용하으로서 두 디자이너는 이탈리아의 수요에 맞는 모조품의 대안을 준비하고자 하였다.

6)Cumano table

이미 현존하고 있는 제품을 선택하여 그 당시의 기술과 조건에 적합하도록 한 것으로 Castiglioni의 가장 전형적인 리디자인된 제품중의 하나이다. 그는 고전적인 작은 야외용 커피 테이블을 개량하여, 사출성형된 독창적인 조인트를 사용하여 접을수 있도록 만들었다. 테이블의 뒷부분에 구멍을 뚫어서 사용치 않을 때에는 벽에 걸어서 보관하기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장식품으로서의 역할을 갖도록 하였다.

7)Arco floor lamp

천정의 구멍과 그로부터 내려오는 전기줄을 사용하지 않고 대리석 본체, 스테인리스 스틸과 반사경으로 구성된 Arco램프는 거리의 가로등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전구는 몸체와 2.5m떨어져 빛을 발하며 테이블에 앉아 저녁식사를 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준다. 대리석 본체에 있는 구멍에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끼워넣도록 디자인되었으며 두사람이 들어야 할 정도로 무겁다.

8)Gibigiana table lamp

Gibigiana는 거울로부터 반사된 빛을 의미하는 이탈리아 용어이며, 이 램프는 Castiglioni가 디자인한 램프의 원칙들을 간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콘과 같

이 생긴 형태속에는 뒷쪽의 동그란 거울로 빛을 비추는 작은 할로겐 램프가 들어 있다. 그 거울은 빛을 받아 반사되어 특정한 위치에 빛을 밝혀준다. 반사되는 빛의 방향은 거울을 감싸고 있는 덮개에 설치된 나사로 조절된다. 램프옆면의 레버를 움직임으로서 빛의 밝기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형태가 꺾어진 Gibigiana램프는 마치 과학적인 목적을 위해 디자인된 도구처럼 보이도록 철저하게 설계되었다. 이외에도 그가 디자인하여 생산된 150여가지의 제품들이 있다. 이것은 그가 주장하는 “이전의 유사한 사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하며, 새로운 물건을 창조하거나 현존제품을 개선할 이유를 이해해야 하며, 이용가능한 수단을 인식해야 한다”는 그의 철학과 이론에 바탕을 둔 디자인이라고 생각된다.

3. 결론

Castiglioni는 디자인 경향이 아이디어에 중심을 두기 보다는 패션에 중심을 두어왔다고 말하며, 새로운 디자인은 스타일링에 의하기보다는 필요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아이디어들은 종종 일상생활용품들로 부터 영감이 떠오른 것들이며 “Design demands observation”은 그의 디자인 모토들중의 하나이다. 그는 자주 이렇게 말해왔다. “What you need is a constant and consistant way of designing, not a style”. 그의 디자인 방법은 사물을 이해하려는데에 집중되어 왔으며, 그의 디자인들은 관찰되거나 상상적인 필요에 의해 만족스러운 디자인해결안을 제시하고 이야기형식으로 디자인을 풀어나가는 독특한 방법을 디자인에 적용시켜 왔다. 또한 형태와 기능이 성공적 디자인의 주요한 구성요소이지만 그것이 디자이너의 유일한 관심사가 될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Castiglioni의 디자인 초점은 첫째 순응적이고 획일화된 디자인 프로세스가 아닌 이야기형식으로 디자인을 풀어나가는 기지와 재치성, 둘째 문화적 배경에 바탕을 두고 사물을 이해하려는 관찰과 상상력의 필요가 만족스러운 디자인 해결안으로 도출되는 아이디어 중심의 디자인 전개에 있다.

참고문헌

- * The museum of modern art(1997), Achille Castiglioni Design Brochure, New york
- * Kathryn B. Hiesinger & George H. Marcus(1993), Twentieth -century Design, Abbeville Press
- * Thomas Hauffe(1996), Design, Barron's